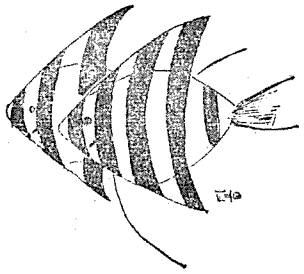
한강의 물고기는 정녕 살아질가



권 숙 표

맑은 공기, 맑은 강물, 조용한 마을—이같은 흔한것마저 이제는 사치스러운 소망으로 변해가고 있다. 인간이 늘어나고 욕망이 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 공장생산, 한없이 불어나는 소비때문에 우리들은 무질서하게 우리의 주위를 더럽혀 가고 있다.

매연·가스·먼지·오물·하수(下水)·공장폐수(工場廢水)는 우리의 주위에서 쌓이고 쌓여 불쾌한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위협이 되기까지 한다.

흔히 공해(公害)를 말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공포는 누구나 느끼지도 않으면서 서서히 우리 생활과 생명을 좀먹는 만성적인 공해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한강은 그 유역면적(流域面積)은 우리나라 국토의 4분의 1이된다. 그러기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오염물(汚染物)이 한강으로 흘러 들어 간다.

첫째로 한강유역의 인구는 우리나라의 인구의 약 50%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많은 인구가 버리는 하수와 분뇨(糞尿)의 처리장(處理場)이 바로 한강이다. 또 한강주변의 농토에서 막대한 량의 농약(農藥)을 살포한다. 이 농약의 대부분은 분해하거나 농토에 흡수되지만 아직도 많은 량이 한강으로 흘러들어 간다.

한강 양안(兩岸)에 위치한 수많은 도시 그리고 공장에서 버려지는 폐수도 한강이외에 버려질 곳이 없다.

이래서 한강의 물은 날이 갈수록 혼탁의 정도가 높아만가고 있다.

하수나 폐수에 섞인 유기물(有機物)은 한강물속에서 흐르는 동안에 부패된다. 부패되는 과정에서 많은 산소를 소비해 버린다. 그래서 한강하류에서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가 거의없는 무산소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물의 부패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어류(漁類)는 생존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 있다.

물속의 물고기는 그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용존산소(溶存酸素)가 4ppm이하가되면 살수없다. 이것은 물고기의 호흡이나 먹이가되는 부유생물(浮遊生物)의 분포가 달라져서 먹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수년전에 이미 한강에서는 심한 갈수기를 맞아 오염된 도시하수에 의해서 극도로 용존산소가 감소하여 한강

하류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

현재 한강 상류는 아직 용존산소는 위험수준은 아니지만 하류는 어족(漁族)이 살수없는 수준에 달하고 있다.

그뿐만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농약중에 『디엘드린』과 같은 것은 0.002ppm(10억분의 2)의 농도에서 어족들이 사멸한다고 한다.

또 공장에서 버려지는 폐수중에는 심한 독성물질과 산(酸), 알카리등이 섞여 있다.

이것은 직접 물고기의 사멸원인이 될뿐만아니라 먹이의 변화때문에 물고기의 감멸(減滅)을 가져오기도 한다.

물속의 극히 미량의 농약이나 중금속(重金屬)염류는 어족의 체내에 축적되어 유독화(有毒化)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롱아일랜드』의 염수성습지대에서는 물속의 농약의 농도보다 거기에서 사는 물고기 체내에 약 2만배의 농약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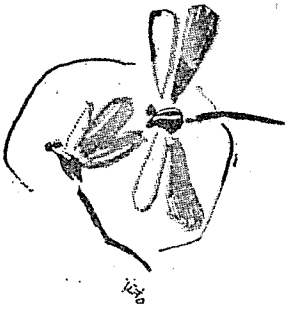
한강은 인간활동에 의해서 오염이 심해져가고 있다. 이제 이대로 오염을 방치한다면 한강의 물고기는 수년내에 영혼히 살아지게 될것이 분명하다.

<필자=延世醫大 예방의학 교수>

● 기생충 박멸표어

기생충 박멸하여
내 건강 내가 찾자

공원이 없는 도시(都市)



李 元 壽

사람은 외따로 떨어져 살지 못하는 것이라서 항상 가까이 모여 살게 되지만, 오늘의 도시처럼 너무 모이다 보면 콩나물 시루 속의 콩나물과 같은 형편에 놓이고 말게 된다.

넓은 땅에서 콩 하나하나가 햇볕과 공기를 마시며 자라야 비로소 콩나무가 되고 꽃피어 열매를 맺는 것인데, 콩나물이 되어서는 생명은 금새 끝장이 나고 만다.

도시의 이 비좁은 공간(空間)속에서 공해(公害)와 함께 살고 있는 도시민(都市民)은 가엾은 것이다. 이 가엾은 신세를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기 위해, 최소한의 길이라 할 것이 공원을 가지는 일이다.

사람은 초목(草木)과 같이 살아야 한다. 초목과 같이 숨쉴 수 있어야 한다. 풀과 나무와 꽃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만이 아니요, 그보다 더 생